

“DMZ 접경서 체험 문화행사 즐기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ART DMZ' 개최
오늘~8일까지 연천·김포서 문화·관광·스포츠 행사
접경지역 자전거로 달리는 '투르 드 디엠지' 등 다양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관광·스포츠 행사가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DMZ 지역연계 문화예술 프로젝트인 'ART(아트) DMZ'를 △8월 30일~9월 1일 연천 장남봉일바라기 축제장(호로그두) △9월 6~8일 김포 아트밸리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앞서 도는 28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동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Let's(렛츠) DMZ' 브랜드를 공개했다.

'움직이는 ART DMZ, 컨테이너를 품다'라는 부제의 'ART DMZ'는 DMZ를 소재로 한 체험형 문화행사로, 복층 컨테이너 건물을 제작해 DMZ와 관련된 각종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담아 연천과 김포에 설치·운영한다. 공사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힘든 DMZ의 정보는 물론, 평화에 대한 메시지와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Let's DMZ 사업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DMZ와 접경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도 국내·외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과 동호인, 일반인 등을 각각 대상으로 30일부터 5일간 펼쳐진다.

경기 파주시가 후원하고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 그리고 화해·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다.

투르 드 디엠지 국제자전거대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특히 이번 대회는 파주 통일대교에서 근대면 접

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뒤편 구간이 새롭게 추가돼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고 평화를 더욱 염원하며 질주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1일 동굴테마파크 광명동굴에서는 '찾아가는 DMZ 홍보·체험' 행사가 열린다. DMZ의 가치를 알리는 DMZ 사진전,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DMZ 식물 그림엽서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평화종일 소담염차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강원 철원군은 '철원 DMZ 중앙평화 꽃송이 축제'를 다음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고석정 꽃밭에서 연다. 고석정 꽃밭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천 여행지로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족이 함께 찾는 명소다.

24ha의 광활한 부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을꽃 수십여 종과 함께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열차, 포토존 등이 펼쳐진다. '저종대왕 김무행차 재현', '무에 및 전법시범', '우리 동네 웰러원 파티', '가을밤 도깨비 음악회' 등 다채로운 테마가 가득하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평화의 중심 철원에서 펼쳐지는 DMZ 중앙평화 꽃송이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와 DMZ 보호, 생태계 보호를 원칙으로 DMZ 도로 비전 등을 담은 'DMZ 도로는 굽은 출길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DMZ 주변 도로는 도로 자체를 명소화해 머물며 구경하는 관광형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양주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DMZ와 일원 생태계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도시가 아닌 도로 건설"이라며 "기발한 노선과 아름다운 구간 등 도로 자체가 충분히 관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문기·인천=박홍서·의정부=최종복·철원=박종식·광명=박재현 기자 kmg1007@

평화의 길목, 예술로 만나는 비무장지대

ART DMZ

경기도와 경기도관광공사는 연천과 김포에서 DMZ 지역연계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ART DMZ'를 개최한다. 도는 지난 28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Let's DMZ' 브랜드를 공개했다. 'ART DMZ'는 이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오는 30일~9월 1일 연천 장남동문화마당 기획전 (호로고루)과 9월 6~8일 김포 아트빌리지 광장에서 열린다.

경기도·관광공사 '...컨테이너를 품다' / 오늘 연천·내달 6일 김포 3일씩 열려

행사는 '유치하는 ART DMZ, 컨테이너를 품다'라는 주제로 진행, DMZ를 소재로 한 체험형 문화행사로 북촌 컨테이너건물을 제작해 DMZ와 관련된 각종 체험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담은 연천과 김포에 설치·운영된다.

유명 그래픽디자이너인 정크레아티브가 DMZ를 주제로 북촌 컨테이너 외관을 디자인하고, 컨테이너를 벗어나 스프레이로 그려낸 작업하는 '라이브 드로잉 DMZ'를 선보인다.

북촌 컨테이너 1층 내부는 디자인 그래픽아트 '내 손으로 그리는 DMZ'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참가자는 각자가 생각하는 DMZ의 상징을 스킷치 바탕에 디지털 스프레이로 그려보고, 그 결과물을 출력해 볼 수 있다. 또 참가자가 앞뒤 단화가가 된 그림을 하나의 에-레이션으로 만드는 '함께 만드는 평화 에-레이션'이 열리며, 각자의 소원을 종이에 적어 변형의 나무에 걸아보는 '자유의 공간과 변형의 나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층에서는 DMZ의 과거, 현재, 미래와 미래를 다루는 DMZ 평화의 길목, 그 첫 걸음이라는 DMZ 특별행사가 관람객을 맞는다. 과거 중립국 감독위원회(UN SCG) 버려진 한국전쟁 이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DMZ 정경지대인 평화누리길의 생애 사진, DMZ 일원에서 개최된 행사 사진 등이 담겼다. 이밖에도 'DMZ 포토존'이 운영되며, 'DMZabout(다들 물어봐)', '거리다, 음악극 등도 마련된다.

한편, 'Let's DMZ' 관련 행사는 9월 한 달 간 DMZ 일원에서 만날 수 있다. 파워 행사로는 DMZ의 가치를 확산하고 평화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의 장인 'DMZ 페스타'가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 킷박스에서 펼쳐진다.

또 19일과 20일 고양 컨테이너에서 국내외 자원인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논어의 광장인 'DMZ 포럼'이, 20일 파주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는 국내 최장급 가수들이 모여 평화통일의 가치와 희망을 노래하는 'Live DMZ'가 열린다.

/경인일보 기자 김희정 기자

▶ DMZ를 소재로 제작한 북촌 컨테이너 건물. /경인일보에서 제공

'Let's DMZ' 시작 알리는 행사 그래픽디자이너 만들거 직접 체험 특별전시·모토콘-거리극도 마련



기호일보

2019년 08월 30일 (금)

사설/칼럼 11면

DMZ의 평화적 가치

한반도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의 평화적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모으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 한다는 소식이다. 여전히 긴장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다. 이러한 때에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술, 음악, 예술 행사를 열어 국제 담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가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포럼·음악 공연·전시·예술 행사 등이 펼쳐지는 'Let's DMZ' 행사를 고양·연천·김포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주요 행사를 포함해 DMZ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행사를 아우르는 명칭이라 한다. 행사에서는 해외 인권운동가와 사회운동가가 기초연설을 하고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는 축하 공연에 이어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토

크 콘서트 등이 열린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DMZ는 국제 연합군·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한 비무장·비전투 지역이다. 지역 내에서는 민간행사와 구제사업 외에 어떠한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민간인과 군인을 막론하고 군사정전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재 화귀동물들의 주요 서식지가 됐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온대 원시림으로 보존돼 있다. 이러한 DMZ와 지역이 연결해 있는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도는 9월 행사를 끝으로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말고 연중 행사를 여는 것도 동업을 앞당기는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정동채 Let's DMZ 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기획한 대로 성공리에 모든 행사가 끝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